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업인 30명 대상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8일 제2청사 1강의실에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지역 내 사과, 복숭아 재배 농가 농업인 30여 명이 참여했다.

농산물우수관리, 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관리하는 제도다.

전문 인증기관의 GAP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GAP 인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해양경찰, 위도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난 17일 위도 진리에서 발생한 70대 응급환자 1명을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2시 48분경 위도진리에 거주 중인 주민 A씨(여, 70대)가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위도보전지소의 신고로 접수됐다.

부안해경은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응급환자 A씨와 보호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포항으로 이송 후 119에 인계했다.

위도파출소는 응급환자 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 살피기 위해 위도의 119의 응소방대 응급구조사 1명이 편승해 이동했다.

이처럼 경비구조장은 "도서 지역 고�령의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대표브랜드 대상 2관왕 수상

고창군, '황토배기멜론 4년 · 청보리밭 축제 2년' 연속 수상

고창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고창 황토배기멜론'과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18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MBC가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다. 지난 2월 1~15일까지 브랜드 신뢰도, 인지도, 품질, 충성도 등에 대한 온라인

인 소비자 설문조사와 브랜드 선정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쳤다.

고창 황토배기 멜론과 고창청보리밭 축제는 각각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과 생태관광 축제부문에서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4년째 브랜드 대상을 거머쥔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서해안 해풍, 높은 일교차 등 농산물 재배에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능가들

의 땅과 열정이 더해져 만들어진다.

높은 당도와 풍부한 향 등을 함유한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해 새로운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최고 품질의 멜론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고창청보리밭 축제도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맞았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가자! 싱그러운 초록나원 청보리밭'을 주제로 지난 15일 개막해 오는 5월7일까지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100만㎡ 보리밭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올해는 보리밭 사잇길 걷기, 차 없는 거리, 트랙터 관람차 운행, 관광 홍보관 운영, 보물찾기, 보리밭 사잇길 버스킹 공연, 문화행사와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정 고창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인 고창수박과 고창복분자는 대표브랜드 10년 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으며, 고창 황토배기 멜론이 대상 수상을 이룬 것도 모두 우리 농민들의 구슬땀 덕분이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성능 · 가격 좋은 불용 농기계 지역 농업인에 우선 매각

정읍시, 25~26일 내구연한 초과 농기계 38종 110대 공개경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한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에 대해 공개경매를 추진한다.

이번 농기계 매각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경매는 오는 25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26일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내구연한

을 초과했거나 수리 비용이 과다해 불용 처리한 농기계 38종 110대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는 사전 설명과 희망자의 물품 확인 뒤 감정평가금액 이상 최고가액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공고일 이전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경매 참여 시 반드시 신분증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농지 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구매를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일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입찰에 응해야 하며, 최종 낙찰 대수는 1인당 1대만 가능하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납부 한 후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공개경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새소식을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063-539-6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소방서, 소방 유물 수집 캠페인 진행

부안소방서(서장 박현)가 국립소방박물관 전시될 소방의 역사가 담긴 유물 수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소방인들의 자긍심 함양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으로 수집된 소방 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 전시를 통해 소방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게 된다.

소방 유물 기증은 상시 가능하며 수집(기증) 대상은 1876년 근대 개항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소방차량에서 사진·작은 배지까지 소방관련 역사가 담긴 크기·종류 상관없이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소방청 소방유물자료관에서 '소방유물 기증운동' 내 '소방유물기증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

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증된 유물은 기증 유물의 중요도에 따라 기증증서 발급 및 국립소방박물관 기증자 명예의 전당·박물관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해 그 뜻을 소중히 기록할 예정이다.

박현서장은 "오는 2025년 건립될 예정인 국립소방박물관에 다양하고 의미있는 유물이 많이 모여 우리나라 소방발전의 역사를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18일 람사르습지 배후지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새서식지 복원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새와 사람, 자연이 어우러진 부안'

철새 서식지 복원사업 착수... 11월까지 5억원 투입 조성

부안군은 18일 람사르습지 배후지역에서 관악현 부안군수, 신경철 LH국토도시개발본부장, 설구호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유영걸 남해종합개발(주) 총괄사장, 줄포초등학교 및 교직원 40명,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새서식지 복원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안군의 생태복원사업은 람사르습지 배후지역에 줄어드는 철새의 유입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모래 및 자갈갈기 등 천적 방지시설, 신관 및 파난시설, 철새서식을 위한 수심확보, 참나무군락 복원, 철새 관찰시설 등으로 추진하여 야생 조류의 안전한 서식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와 연계한 생물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이 철새 복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생태환경으로 복원하고, 지역의 생태힐링과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학습이 가능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함에 정으로 11월까지 5억원을 투입해 16,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하여 다양한 생물의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부안을 찾는 방문객에게 생태관광 자원과의 연계 및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국가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시행

정읍시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민들의 안전 실천 생활화를 위해 국가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국가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은 사회 전반의 위협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예방 활동이다. 시는 민·관 합동으로 집중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81개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활동에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과 시설물 등 총 6개 분야 81개소로 노후 시설물 등 안전사고 우려 시설과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대전환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활성화와 내 집·내 점포 자율 점검하기 등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정과 아파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 안전 점검표를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를 통해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안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점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협요인이 확인되면 긴급 안전조치를 내리는 등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점검에 임해 달라"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